

2023 여름계절학기 파견 - 귀국 보고 및 체험수기

제출자	경영학부 양희영
파견교	태국 UTCC(University of Thai Chamber of Commerce)
파견기간	7 월 10 일 ~ 8 월 6 일

1. 파견 전 준비사항

- 1) 프로그램비 1,800 USD 우선 납부 (등록금, 호텔, 호텔조식, 공항픽업 포함금액)
- 2) 항공권예매, 여행자보험, 여권, 유심, 항공권/여권 사본, 환전, 생활비 준비

2. 필수경비 (개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)

- 1) 등록금 + 해외송금수수료 : 약 130 만원 (50% 장학금 제외 금액입니다.)
- 2) 항공권 : 왕복 약 45 만원 + 수화물추가 8 만원 = 53 만원
- 3) 여행자보험 및 유심 : 약 10 만원
- 4) 환전 : 약 40 만원 (1 만바트)
- 5) 카드사용 : 약 60 만원
- 6) + α ..

3.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..

여름학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! 파견 한 달 동안 체력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3 주 차쯤에 감기몸살로 고생했거든요,,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어딜 가든, 실내에선 에어컨을 세게 트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냉방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. 우기여서 그런지 기온은 30-33 도를 웃돌아서 너무너무 덥고 습하지만 생각보다 못 참을 정도는 또 아니었습니다. 얇은 긴 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학교에서 공지사항을 라인으로 해주십니다. 휴대전화 인증 필요한 어플이라 한국에서 사전에 깔아가면 좋습니다.

한 달 동안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, 1~2 주 차 일정이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. 첫 2 주 동안 모든 중요한 수업들과 기억에 남을 법한 투어들이 진행됩니다. 3~4 주 차 일정은 국왕 탄신일로 인한 홀리데이(여름 계절학기만 해당)와 발표 일정이 있어 마지막 2 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.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사진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(사진첩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네요). 개인적으로 투어 스케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을 꼽자면 아이콘시암 쇼핑 이후 디너 크루즈 탄 것과 시암파크시티 간 날입니다.

경영학부 학생들은 특히나 마케팅 과목과 연결되는 파트도 존재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Supply chain 부분은 마케팅 수업 영강으로 듣는 기분이었습니다. 마지막

클래스에 진행되는 최종 발표는 타이틀은 "팀별로 맡은 국가 환경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"이었습니다. 꽤 광범위 한 주제여서 모든 팀들이 짬짬이 호텔 로비에서 팀플을 하곤 했습니다. 학교 일정 따라가고, 시간 쪼개서 여행하고, 피피티 만들고 대본 짜고.. 너무나도 알찼습니다.

같이 한 달을 하게 될 룸메이트, 친구들과 빠르게 친해질수록 한 달 간의 기억이 풍부해집니다. 최대한 시간 쪼개서 방콕 곳곳을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방콕에 가기 전에 생각하기를, 한 지역에 한 달이나 있으면 마지막 주쯤에는 갈 만한 곳 다 가봤겠지, 집에 가고 싶겠지, 한식 먹고 싶겠지,,라고 생각했는데,, 전혀 아니었습니다. 생각보다 방콕이 알찼습니다. 곳곳에 놀러 갈 곳 많고, 쇼핑할 것 많고, 아직도 가고 싶은 곳이 남더라구요. 시장이나 일부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카드와 GLN 사용이 가능한 곳이 많으니 짜뚜짝시장 쇼핑할 돈이나, 길거리 음식 사 먹을 돈을 위해서 초반엔 현금을 아껴 쓰세요! 남을 까 봐 현금부터 썼는데, 후반엔 부족하더라구요.

학교를 처음 가는 날 캠퍼스 투어를 하게 되는데, 이날 UTCC 버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. 수업 시간을 제외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투어들을 진행할 때 일부 버디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고, 자연스레 친해지게 됩니다. 방콕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낸 친구들이라 모르는 것들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. 먼저 말 걸고, 공통 관심사 이야기 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금세 친해질 수 있습니다. 국제 학교라서 생각보다 태국 친구 사귀기는 쉽지 않고 주변 국가 (미얀마, 베트남, 캄보디아..)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. 이 친구들과 너무 많은 추억을 남겨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구요..

한 달 내내 일정 따라가기 바빠서 방콕에서 느낀 것 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여유가 없었는데, 친해졌던 외국인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무렵이 되니까 한 달 동안 함께했던 모든 인연들에 정이 들어 너무너무 아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막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파견이 마지막 기회였지만, 갈 수만 있다면 또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기억들만 가득합니다.